

이 도(道)는 다시 두려워할 것 없어서 깨끗함을 보아 세상을 건너네. 이것은 능히 마병(魔兵)을 깨뜨려, 힘써 행하면 사고(邪苦)를 면한다.

법규경 · 도행품 392절

제1279호 1999년 (불기 2543년) 9월 20일 월요일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 http://dgp.dongguk.ac.kr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 (02)2260-3491~2 FAX(02)2279-1270/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0561)770-2057

도서관 증축 둘러싼 학내여론 다양

기초계획안 통해 설계 진행 ... 의견수렴 통한 편익 보장해야

지난 학기 서울캠 등록금 협의 과정에서 10대 학자 요구안과 함께 논의되었던 '도서관 증축' 문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본관 옆 강의동 자리에 지하 2층 지상 3층의 총 면적 3천 5백평 규모로 증축될 예정인 가운데 위치나 규모 등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제기되어 오고 있으며 기초 설계작업을 진행중인 지름도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설관리팀의 한 관계자는 "이미 기초 계획안을 통해 설계작업에 들어간 상태"라며 "그러나 시공 계획이나 그 밖의 논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구체적인 완공 날짜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 동안 도서관 증축이 확정된 이후로 도서관 위치에 관한 다양

한 의견들이 개진되어 왔다. 다량관 근처의 기숙사를 매입해 건설하는 것과 교수회관을 강의동 자리에 신축하고 기존의 교수회관을 도서관으로 개편해 이용하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또한 건국대의 '상허 기념도서관'과 단국대의 '퇴계 기념도서관'과 같이 본교 또한 '한해 기념도서관'을 만해광장에 짓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치 선정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냐이다. 현재의 계획대로 강의동에 신설됐을 경우 도서관의 대출 등에 있어 두 곳을 모두 이용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교수회관과 중앙도서관을 통합하고 강의동 자리에 교수회관을 다시 신축하는 의견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사과대의 한 학생은 "도서관 신축은 좋은 일이지만 향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이용자들의 편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물론 도서관이 증축될 경우 열람실과 좌석수가 늘어 이용자의 수를 늘릴 수 있고, 도서관의 보충으로 기존에 구비하고 있지 못했던 책을 구입하고, 복잡하게 진열돼 있던 책들의 배치를 다시 정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앞으로 도서관 증축과 관련해

부족한 점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완공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좀 더 나은 도서관 증축을 기대해 본다.

양경인 기자 yangkang@cakra.dongguk.ac.kr

후문앞 일방통행 확정

오는 10월말 공사 마무리

서울캠 후문앞 일방통행이 후문에서 북두사거리방향으로 총무초등학교에서부터 북두사거리까지의 구간으로 확정됐다.

9월 16일 열린 중부경찰서 도로교통 규제심의 위원회에서 일방통행이 확정되었으며, 10월중으로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대중 정부 들어 교수, 학생, 직원 등 대학교육에 관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행, BK21 강행 등은 지금의 대학을 극도의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대책위(약칭)는 지난 18일 명동성당에서 '등록금 삭감, 교육관련법 민주적 재개정, BK21 전면 무효화'와 김대중 정권의 교육정책 파산선고를 위한 국민대회를 열고 전면적인 교육정책의 수정을 요구했다.

양경인 기자 yangkang@cakra.dongguk.ac.kr

지면안내

- 75분 강의제 보완 필요 3면
- 심익섭 서울캠 교수회장 인터뷰 2면
- 민노총 단병호체제 출범 의미 4면
- 대학문화정체성 찾기, 그 3번째 7면

보리소

일기일회(一期一會)

정성분 (불교문화대 불교학)

한봉희 교수 논문 봉정식 열려

한봉희(법학)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및 수상록 봉정식이 지난 17일 상록원에서 치러졌다. 이번 논문집은 '가족변론집'으로 한봉희 교수의 지난 40년간에 걸친 가족법 연구의 결실이다.

최세화 교수·최형기 동인 '후배사랑 물소 실천'

지난 8일 최세화(전 국어교육과) 명예교수가 소장 도서관(관장=조용길·불교학)에 기증했다. 기증도서는 1천6백32년 간행된 '두시언해' 18책 25권을 포함한 고서 1백85점 및 국문학·어학 관련서적을 비롯한 단행본 2천 여권 등이다.

한편, 지난 16일 외부장학금의 일환인 후배사랑장학금 명목으로 최형기(전자공·80졸, 현우 MCPuls 사장)등분이 전자공학과에 5백만원의 기탁했다.

지난해부터 모금하기 시작한 후배사랑장학금은 학과별로 모금하여 모금액의 20%에 상응하는 학교당국의 후원금을 합쳐서 해당학과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된다.

경주병원 병원표준화 '최상급'·정신병동 신설도

"120억원 투입 각종 최신장비로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경주병원에 다음달 1일 정신과 병동이 개설되면서 더욱 발전하는 병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캠 새 교수회장단 선출

심익섭·진대호 교수 당선

지난 16일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서울캠 교수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전체 재직인원 2백81명 가운데 74명의 교수가 참석하고 91명의 교수가 위임장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 정기총회를 진행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8월 정기총회부터 지난 15일 경주

본교 부설 경주병원(원장=정필현·정형외과)이 병원협회에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99년병원표준화심사'에서 전국 최고수준의 성적을 받았다. 병원표준화심사는 대한병원협회가 71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매년 3백여개의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병원 전분야에 걸쳐 평가하는 유일한 병원종합평가제도다. 수검결과에 따라 전공의 정원 확보, 현상사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경주병원은 지난 97년에도 우수한 성적을

이와 관련해 교수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기총회에 70명이 넘는 교수들이 참석한 것은 교수회 조직화의 필요성을 교수 스스로 자각한 것"이라며 "앞으로 교수회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경주캠 또한 지난 15일 교수회 정기총회를 진행해 진대호(수학교육) 교수를 교수회장으로 선출했다.

한편, 양캠 교수회 총회장은 오는 10월 초 개최될 예정인 합동 대의원총회를 통해 선출할 예정이다.

받은 바 있다. 이번 심사와 관련해 정필현 원장은 "각종 진료시설의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라 보고 앞으로도 의학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주병원은 다음달 1일 본관 8층에 정신과 병동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번에 2백30여평 38병상 규모로 개설되는 정신과 병동은 환자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해 1억원의 비용을 들여 필요한 장비를 갖추었으며 특히 실내인테리어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한편 경주병원은 그간 1백20여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종합검진센터, 통증클리닉, 당노클리닉 등

을 개설하고, 최첨단 MRI, 스펙트럼 등의 의료장비를 갖춘으로서 지역최대의 종합병원으로서 우수한 전문의 양성 및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희정 기자 dg19711782@mail.dongguk.ac.kr

신경림·조정래교수 초청강연

다음달 6일·13일 각각 열려 본교 만해문화교수인 신경림, 조정래시 초청강연이 다음달 6일과 13일에 각각 열린다. 6일에는 신경림 교수가 '김기림, 정지용 시에 나타난 일본식의 영향'을, 13일에는 조정래 교수가 '소설 태백산맥과 민족문학'을 강연한다.

직원노조 99정기총회 개최

임단협 체결사항 등 논의

전국대학노동조합 본교지부(지부장=백경선, 이하 노조)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중앙당에서 9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99임단협체결에 관한 사항 보고 △감사보고 및 결산승인 △사업계획 보고 및 예산승인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노조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던 임단협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총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알림

본사사정으로 발행이 하루 지연되었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1280호는 추석연휴로 10월 4일자에 발행됩니다.

동대신문 기획광고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께

아버님, 어머니 한가위는 다가오는데 올해도 집에 가지 못해 죄송스럽습니다. 이렇게 집에 가지도 못하고, 차례도 못 모신지 네 해가 지나고 있습니다. 아주 가끔은 도대체 내가 무얼 잘못했기에 이렇게 고향에도 못 가고 가슴 아파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저의 잘못은 남들처럼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저 자신에 대한 사랑만이 아니라 나의 조국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길은 저 자신에게도 아버지, 어머니께도 고통이었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세월동안 아버님과 어머니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 내리던 것이 눈물과 고통뿐이었겠습니까?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 만큼 얻은 것도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모르고 살았던 가족의 소중함, 일상의 행복 및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며 보다 본질적으로는 인간은 자신의 심장이 이르는 대로, 자신의 양심과 신념대로 살아야 몸은 비록 고달프지만 참되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비록 몸은 묶여 있지만 사과 한 꾸러미 들고 마음은 벌써 두 분이 계신 곳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언제쯤 우리 가족 모두가 모여 지내는 한가위가 올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달리 먹고자 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일 한가위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할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매사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겠습니다. 늘 기쁜 마음으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지 못하는 장님이 멀리서 글 씁니다.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장에서 유병문 올림

발전기금 ARS 7000-119

국·가·보·안·법·철·폐

동대신문사

모집단위 광역화 반발

문과대 학장실 점거농성... "공개적인 논의의 장 마련해야"

본교의 2학년년도 모집단위 광역화 방침이 알려지면서 총학생회(회장=김호중·불교4, 이하 총학)와 문과대학생회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지난 7일부터 명진관 앞에서 '모집단위 광역화 전면철폐를 위한 무기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던 문과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오종진·사, 이하 비대위)는 지난 15일 모집단위 광역화 철폐를 위한 문과대 2차 결의대회 후 문과대 학장실을 점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문과대의 인문학부와 국어국문학부 학생회장들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지난 17일 학교 당국의 신재호 교무처장과 김낙년 교육개혁 추진팀장, 선상규 학생복지실장과 문과

대 학생대표로 오종진 문과대 비대위장과 김형석 인문학부 학생회장, 신석철 국어국문학부 학생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면담에서도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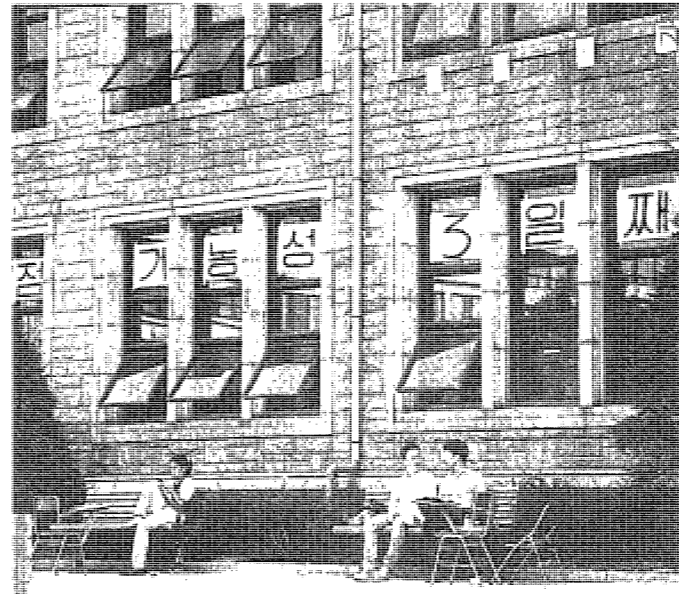
이날 면담에 참석했던 김형석(사학3) 인문학부 학생회장은 "인문학부내에서도 90%이상의 학생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현재의 광역화안은 전면철폐되어야 하며, 공개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후 다시 실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면담에 참석한 학교 당국의 한 관계자는 "하나의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문

재점 보완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행에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총학 또한 지난 16일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철폐와 모집단위 광역화 철폐, 자주적 의사 선출을 위한 민족통국 2차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현 집대중 정권의 교육정책은 전면 폐지되어야 하며 현재 학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집단위 광역화 또한 철폐되어야 한다"며 "더욱더 강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학생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모집단위 문제에 있어 여러차례에 걸쳐 공개적인 논의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주장하고 있는 '일괄적'이라는 표



문과대는 모집단위 광역화 철폐를 위한 9일간의 천막농성을 접고 문과대 학장실 점거에 들어갔다.

현은 맞지 않다"며 "학생들이 현재의 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려면 보다 논리적이면서 공개적인 자료를 통해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9월 중으로 모집단위안이 확정될 예정이나 확정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유철주 기자
cowso@cakra.dongguk.ac.kr

수도권 고교대상 무료홈페이지 구축

본교 홍보에 큰 역할 기대

교무처(처장=신재호·전자공학)의 학생선발실은 '교육의 정보화와 세계화'에 발맞추어 고등학교 홈페이지 무료구축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40여개 고등학교의 홈페이지를 구축했으며 연말까지 30여개의 홈페이지를 더 구축할 계획이 있다. 또한 시행의 성과를 보기위해서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전국적

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교무처의 한 관계자는 "이번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현재 시장되어 있는 각 고등학교 홈페이지의 활성화를 통해 해당 학교의 정보화에 도움을 주고, 본교의 입시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여 본교를 널리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추석맞이 '한가위 한마당' 진행

놀이마당·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

생활협동조합(이사장=김진철·정치외교학과)과 학생복지위원회(회장=박찬정·수교4)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오는 21일 '한가위 한마당'을 개최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백범시장 △제기차기, 널뛰기, 팽이치기, 스키야공룡 타기 등 상상놀이 한마당 △통일과 학원자주에 관한 보물찾

기 △대중 20인 줄다리기 △우리들이 경연대회 등으로 이뤄지며, 오후 2시부터는 떡과 전등유를 무료로 나누어준다. 각 부문별 행사 일정을 살펴보면 낮 12시에는 제기차기 경연대회가, 1시에는 스키야공룡 타기 경연대회가, 오후 3시에는 우리말 이름의 남·여 각각 10인으로 구성된 단체가

참여하는 '대중 20인 줄다리기'가 열리며,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오늘(20일)까지 학부위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한가위 한마당'에 이어 오후 5시부터 민족통국 과·학부 학생회 한마당이 불상 앞에서 열린다. 각 학과·학부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를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각 학과의 특성을 표현하는 '재활용으로 만든 조형물 경연대회'와 각 학과의 명물이 펼쳐지는 '뽕내기 한마당'으로 진행되며, 각 수상 팀에게는 과료비를 통해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캠 신임교수회장 인터뷰



심익섭(행정학) 교수회장

"교수회를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다"

교수들의 강력한 구심이 되도록 할 터

-당선 소감은... =먼저 지지해주신 여러 교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교수회장 직무대행으로 교수회를 운영하면서 미숙한 점도 많았고 무엇보다 교수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침체돼 있어 어느 때보다 아까운 무렵이다. 여러 교수님들의 관심과 성원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교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성원에 보답하겠다. -교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보다도 교수회의 체제정

비를 통한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지난해 유력 교수회장의 사퇴 이후 조직의 기분이 흔들리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 실추돼 있는 본교 교수회의 이미지 쇄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직 전반에 걸친 정비를 통해 더욱 내실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그 동안의 교수회는 다분히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성향이 강했으나 앞으로 교직원, 학생 등 학내 구성원들과의 교류기회를 넓혀 열린 공간을 마련할 것이다.

-모집단위 광역화 및 두뇌한국 21 사업 등 교육정책에 관한 생각은... = 학교나 교육부에서 제시한 정책에 대해 앞으로 교수회에서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합리적인 분석 및 해석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다.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두뇌한국 21사업은 반드시 철회시켜야 할 사업이다. 현재 본교는 자연과학 분야에 이미 4개 핵심분야가 선정되는 등 교육부의 사업에 발맞춰 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교수회는 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필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해 정책 전반에 관한 여론 및

의견을 수렴해 보다 진취적인 방향으로 모든 문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내 구성원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현재 교수회에서는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 등 교육관계법 개정과 관련된 1백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교수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이번 서명운동에 본교만 부진한 참가를 보이고 있다.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교육관계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해 모든 동국인이 이번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한다.
양강익 기자
yangkang@cakra.dongguk.ac.kr

우정 장학금 신청

우리 생활협동조합에서는 본교 학부생 조합원을 대상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중 교내·외 장학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이 99년 2학기 생활 우정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 지급대상 및 장학금액
 - 1) 지급대상 : 서울캠퍼스 학부생 조합원 22명
 - 2) 장학금액 : 기성회비 전액(₩543,000)
2. 지급절차 및 일정
 - 1) 서류접수 기간 : 9월 13일(월) ~ 9월 27일(월) 오후 5시까지
 -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생활 사무국(해화관 1층)
 - 3) 장학금 지급
 - 가. 지급일시 : 9월 30일(수), 11:00
 - 나. 지급장소 : 생활 회의실
3. 신청자 자격 조건 :
 - 1) 보호자의 재산액 납부액이 5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2) 99년 2학기 학교에서 각종 장학금을 받지 아니한 자
 - 3) 현재까지 생활 우정 장학금을 받지 아니한 자
 - 4) 학교 장학규정에 미달되지 아니한 자
4. 구비서류
 - 1) 장학금 신청서 1부(생활 및)
 - 2) 보호자(등록금 조달 및 가족부양자) 지상세(미)과세 증명서 1부
 - 3) 보호자 소득세 납부 증명서 또는 영수증(급여 생활자는 98년 갑근세 원천징수 영수증)
 - 4) 주민등록등본 1부
 - 5) 성적증명서 1부
 - 6) 신청자 은행 통장 사본 1부 (학생증 통장 : 제일은행)
 - 7)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8) 자연 재해 피해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9)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10) 직계 가족 입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서울캠 생활협동조합

정기 강연회

그동안 교수평의회는 정기 강연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 동국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매달 한번씩 강연회를 개최하고자 회원 교수님들을 비롯한 많은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학기 강연회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차 강연회
 - 일시 : 99년 9월 27일(월) 오후 6시
 - 장소 : 명진관 208호 강의실
 - 주제 : 부패의 정치경제학과 시민 민주주의
 - 강사 : 홍윤기(동국대 철학과 교수)
- 제2차 강연회
 - 일시 : 99년 10월 19일(화) 오후 6시
 - 장소 : 추후 발표
 - 주제 : 상윤리에서 자유주의적 '동'의 문제
 - 강사 : 구승희(동국대 윤리학과 교수)
- 제3차 강연회
 - 일시 : 99년 11월 16일(화) 오후 6시
 - 장소 : 추후 발표
 - 주제 : 경제위기와 사회적 신뢰의 위기
 - 강사 : 박찬홍(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 제4차 강연회
 - 일시 : 99년 12월 14일(화) 오후 6시
 - 추후발표

서울캠 교수평의회

입주업체 모집

본센터에서는 지식집약형 중소기업 지원과 창업육진을 위해 벤처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모집합니다.

1. 입주신청자격
 - 관련법령에 의해 벤처기업으로 확인 또는 확인가능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문화산업(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 및 생물산업 등 새분야의 창업 1년 이내인 기업
 - 나. 위 세 분야의 예비창업자(본 대학 교수·대학(원)생 포함)
 - 다. 기타 본센터가 인정할 수 있는 지식집약형상품을 개발했거나, 개발예정인 창업 1년 이내의 기업 혹은 예비창업자
2. 입주개요
 - 입주처 :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번지 동국대학교 벤처창업보육센터
 - 입주예정일 : 1999년 11월 1일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계약에 의하여 1년 연장 가능)
3. 지원내용
 - 입주공간 및 공용통신라인, 전선망 제공
 - 공용장비 및 대학보유장비 제공
 - 경영·기술지도 및 컨설팅
 -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4. 입주자 부담금
 - 보증금 : 평당 10만원
 - 월임대료 : 평당 5만원
 - 관리비 : 실비기준 공공요금 및 장비사용료
 - 입주업체 요청에 의한 경영·기술지원 분담금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처 : 본대학 벤처창업보육센터(우편접수 가능), 전화 : 0561-770-2472
 - 접수기간 : 99년 9월 1일(수)~99년 9월 30일(목)
 - * 입주신청서 양식은 vti.dongguk.ac.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입주신청서 파일이 저장된 디스켓 1개를 제출하여야 함
 - * 본센터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을 반드시 검색하기 바람(홈페이지는 9월 9일 이후 검색 가능)

경주캠 벤처창업보육센터

만해광장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

추석이후 이용 가능

사무처(처장=홍영수)는 하계방학 중에 만해광장 보수공사를 실시했다. 방학과 동시에 시작된 이번 공사로 만해광장을 농구장 두면, 세미코트 세면, 족구장 두면으로 나누어 우레탄을 깔고 방음벽과 조명타워, 세면대 등을 설치해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사무처는 대운동장과 상록원을 연결하는 총계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시설관리팀의 한 관계자는 "하계방학중에 비가 많이 와서 공사가 늦어졌다"며 "늦어도 추석이후에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서관 바람직하게 이용했으면"

모범 이용자상·봉사상 시상

도서관(관장=조용길·불교학)은 '독서의 달'을 기념하여 도서관 모범 이용자와 모범 봉사상 수상자를 선정, 지난 14일 오전 10시 총장실에서 기념패와 부상을 수여했다.

모범 이용자는 도서관의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반납기간을 잘 지킨 것을 기준으로 성유동(토목4), 정찬성(경제3) 2명이 선정됐고, 모범 봉사상은 도서관 근로장학생을 대상으로 성실성과 친절성을 고려하여 윤영선(역교3), 박승호(경영(야)3) 등 2명이 선정됐다.

2학기 분할납부신청 저조

3백39명 신청, 1차 납부금 등록

지난달 4일까지 실시한 분할납부신청에 3백 39명의 학생들이 접수해 대부분의 학생이 1차 납부금을 냈다. 지난 18일까지 등록금을 내지 않은 학생과 분할납부 신청만하고 1차 납부금을 내지 않은 학생은 미등록 처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재무회계팀 한 관계자는 "분할납부 신청에 예상과는 달리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속에서만이 이 제도가 정착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야충, '남산골 한마당' 개최

행사전후로 일일차집·북한만화영화 상영 등

야간강좌 총학생회(회장=이영수·전통4, 이하 야충)는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 양일에 걸쳐 '남산골 한마당'을 진행한다.

오는 30일은 전야제로 오후 5시부터 농구·족구·족구·단체줄넘기·장기·바둑 등의 결승전과 '99 발판'이라는 소모임 문화제, 풍물패 '마당'의 전통판굿이 펼쳐진다. 분마당인 1일에는 오후 5시부터 학생들의 자기자랑 무대인 '한밤의 노래자랑'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와 관련해 야충은 통일광장에서 오는 28일에는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일일차집을 운영하고, 28일과 29일 오후 7시부터는 북한만화영화를 상영한다. 또한,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통일광장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제로한 거리선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등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인터넷 등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편집인 겸 주간	양영진	인터넷 등대신문 http://www.dongguk.ac.kr
부편집인	신규박	이메일 ID dgupress 나우누리 ID 등대신문
편집국장	박상관	전화번호 02 dgupress
편집장	김미경	구독문의 : (02)2260-3491·2

서울캠사무 (우)7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풍동로 28 경주캠사무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8-1270 전화 (0561)770-2058 팩스 (0561)770-2057

우정 장학금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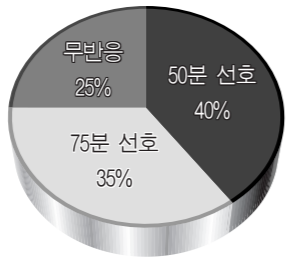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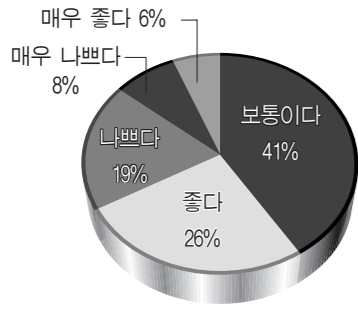
정기 강연회

입주업체 모집

개설 및 이용 안내

75분 강의제 보완 필요성 공감

‘연강’ 문제점 개선 ... 0, 1교시 효율적 활용 방안 강구해야



99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75분 강의제가 현재 학내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75분강의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본래취지는 3학점 강좌가 2시간과 1시간으로 나뉘어 있어 1시간 강의를 없애고 2시간만 강의를 하거나 나뉘어 있었던 강의를 연속강의로 통합시키는 등 불합리한 과거의 50분강의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75분 강의제도의 시행에 앞서 그에따른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하고 성급히 시행했다는 문제점이 대학내 여러 구성원들 사이에 지적되고 있다. 이에 경주캠 교무처에서는 교수와 학생을 대상으로 '75분강의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치러진 설문조사 응답자 총3백56명중 41%가 75분강의제에

대해 '보통이다'라고 평가했으며, 26%가 '좋다', 19%가 '나쁘다'고 응답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75분강의제도와 과거의 50분 강의제도의 호감도 부분에서는 35%가 75분강의제를 40%가 50분강의제를 선호했으며, 25%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설문결과에서 75분강의제에 대한 장단점 평가는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그 선호도에 있어서는 학내 구성원들이 과거의 50분강의제를 좀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분강의제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측의 홍보부족으로 인한 구성원들의 혼란가중과 제도의 첫 시행으로 오는 적응부족, 과거 50분강의제도의 문제점인 6시간 연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한편 6시간 연강과 관련해 학교측의 한 관계자는 "현재 강사들은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경

우가 다반사"라며, "만약 75분씩 나누어 강의에 들어온다면 강사들의 교통비도 생각해야할 것"이라고 제도시행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0교시(08:00) 및 1교시(08:30)수업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강의실 활용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75분강의제도의 근본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들 외에 휴식 시간부족, 강의실 이동시간 부족 등도 교수와 학생들이 현 제도에 느끼고 있는 불만요소이다.

이런 문제점들은 다음 학기에 보완해야 할 문제지만 현재로서는 학교측이 해야될 과제는 75분강의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강사채용에 보다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박양우 기자 dg19711437@mail.dongguk.ac.kr

야총, 황수관 박사 초청 강연회 개최 '신바람 건강법' 주제로

야간강좌총학생회(회장=백석호·정보산연3 이하 야총)는 오는 10월 4일 문무관에서 본교학생 및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황수관 박사의 '신바람 건강법'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4일 오후 5시부터 시작하는 이번 강연회의 방청권은 △신라약국 △레일로드 △고구려기는 길 △미화꽃집 등 10여곳에서 배부받을 수 있으며, 방청권 구입비는 무료이다. 황수관 박사 초청강연회와 관련해 백석호 회장은 "이번 강연회에서 시민들은 반드시 방청권을 소지해야 방청가능하지만 본교 학생들은 방청권이 출입이 가능하다"며, "대신 강연회중 외부출입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야간강좌총학생회(회장=백석호·정보산연3 이하 야총)는 오는 10월 4일 문무관에서 본교학생 및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황수관 박사의 '신바람 건강법'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보관리실, 자격증 대비반 모집

정보관리실(실장=조영석·컴퓨터학)은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대비반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격증 대비반의 강좌를 살펴보면(강좌명 : 강의기간(교육시간)=수강료) △정보처리 필기반 : 오는 1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오후 6시부터 8시까지)=12만원 △워드프로세서 필기반 : 오는 27일부터 오는 11월 19일까지(오후 6시부터 7시까지)=6만원 △PCT인증반 : 다음달 4일부터 29일까지(오후 6시부터 8시까지)=6만원 등이며, 강의장소는 아직 미정이다.

한편 워드프로세서의 접수마감은 오는 20일까지이며, 그의 강의 접수마감은 개강일 전까지이다. 이번 자격증 대비반과 관련해 정보관리실의 한 관계자는 "최소모집 인원은 20명이며, 접수상황에 따라 증설, 폐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상경대 소식지 '출범 선포지' 발간

상경대학생회(회장=김동규·경영4)는 오늘(20일) 99학년도 2학기 출범 선포지를 발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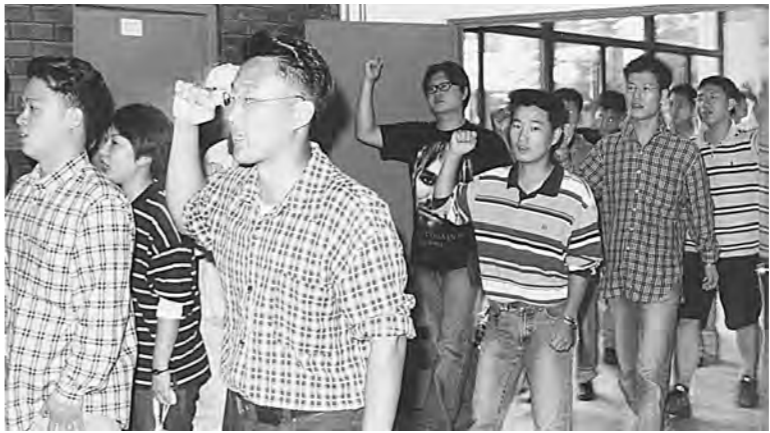
새학기를 맞아 상경대 소식지의 일환으로 발간되는 이번 선포지에는 △각 학부·과들의 한 학기 사업방향 및 기초 소개 △동아리별 2학기 행사 광고 △교육의 공공성 확보

에 관한 칼럼 등이 실린다. 한편 상경대학생회는 9월말에 상경대 홈페이지 개설 및 상경대 학생전용의 취업사이트 링크를 선보일 예정이다. 취업사이트 개설과 관련해 김동규 회장은 "상경대 학생 전용의 취업사이트를 통해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동창회, 체육대회 개최

본교 총동창회(회장=권노갑)는 오는 10월 3일 오전 9시 경주캠 체육관에서 '동국인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해외지역의 동문활동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예년과 달리 북미주 지역 동문 100여명을 초청할

이번 대회는 전날 오후 7시 코오롱 호텔에서 전야제를 시작으로 배구·줄다리기·줄넘기·골프·웃놀이 등의 경기로 치러질 예정이다. 또, 종목별 1·2·3위에게는 각각 트로피와 상품이 수여되며, 골프는 보문단지에서 번외경기로 치러진다.



사진은 지난 17일 원화관 학생복지실 앞에서 시위를 마친후 교육투쟁에 관한 결의를 다지며 나오는 모습이다. 우천때문에 약500여명의 학생들이 이번 교육투쟁 선포식에 참가해 학생회측이 인원동원 노력에 소울함을 내비쳤다. 더우기 많은 중운위 위원들의 불참으로 조직적인 투쟁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박양우 기자 dg19711437@mail.dongguk.ac.kr

창업센터, 캐릭터 박람회 계획서 모집

벤처창업보육센터(소장=황운식·회계학 이하 창업센터)는 경상북도에서 주최한 '99 경주캐릭터박람회'에 참가할 작품계획서를 오는 30일까지 접수받는다

작품계획서의 내용은 △A4 용지 2매정도의 작품설명서(캐릭터명칭, 캐릭터의 성격, 제작의도) △캐릭터 사진(3가지 동작 이상, 칼라사진 5X7) △내용물 설치계획서 △홍보물 배포계획서 등이다. 접수받은 작품은 다음달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장에 전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창업센터의 한 관계자는 "우수작품으로 선정될 경우 본인의 캐릭터 작품이 기업체에 상품화될 수 있으며, 높은 상업적 가치를 가진 캐릭터 작품을 벤처기업으로 육성할 경우 최고 5억원의 새천년관광투자조합 보조금이 부여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박람회가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술학과만이 지원한 상태여서 창업센터의 홍보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동연, 대표자 회의·체육대회 개최

동아리연합회(회장=이건상·회계4 이하 동연)는 오는 28일 오후 6시 '전체 동아리 대표자회의'를 개최한다. 이번회의 안건은 △동아리 행사계획서 △거리문화제 논의 △체육대회등이다. 한편 동연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 대운동장에서 '동아리 축주대회를' 개최한다. 참가자격은 동아리연합회에 등록된

동아리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기간은 28일까지이다. 또한 이번 축주대회에 △러브피구 △줄다리기 △행렬 △뿔대결 등이 추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건상 회장은 "신인생과 재학생의 친선을 도모하고자 이번 대회를 개최하니 동아리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졸준위, 취업지발간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이시영·법4)는 오는 30일 까지 여성취업정보지와 취업정보지를 발간할 예정이다.

여성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고자 발간되는 여성취업정보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량실업시대의 여대생 취업 △여성, 성공직업 찾는 길 △여성 유망업종, 직종가이드 △21세기의 유망자격증 △20대 여대생이 되는 작은 창업, 큰 성공 등이며 취업정보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졸취업 부익부 빈익빈' 명문대 웃고 지방대 울고 △여대생 취업률 되살아났다. △호황업종 신규채용 노력 △전문자격사 따기 쉬워진다. 내년부터 선발인원 늘어 등이다. 한편 지난 15일 동아리 연습실에서는 △2학기 사업진행방향 △스냅사진확인 △추가활영일자 등을 안건으로 제 2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한익대, '동의려제' 개최

한익대학생회(회장=이성민·본1)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한의학과 앞에서 동국한의원인 축제인 '동의려제'를 개최한다.

오는 28일 치러질 행사를 살펴보면 △체육대회 결승전 △동아리 공연 △가요제 △주막 등이며, 드림그룹사운드 메르디안스와 민중노래패 청년허준의 공연도 있을 예정이다. 오는 29일에는 △하술 논문제, 영화상영 △장기자랑, 무대행사 △스타크래프트 게임 결승전 △주막 등이며, 무대행사에는 설문조사를 통해 선출된 남학우의 미스 동국한 의와 노예행사의 이색행사도 준비돼 있다. 한편, 스타크래프트 예선전은 오는 27일 성근동 X-파일 게임 임장에서 열린다. 오는 30일에는 △대동놀이 △뿔놀이 등이 열리며, 남월 박주현 스님의 운운유기와 명리학의 내용으로 오후 3시 소강당 I에서 특강이 있을 예정이다.

본관 부지 조사 마무리 단계 "유적손상 아쉬워"

매장문화연구소(소장=한병삼·고고학)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한 경주캠 본관 예정부지 학술발굴 조사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이에 매장문화재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완효직립 자리가 확인됐으나 근래의 많은 비로 유적이 훼손

손해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가 없었다"고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이번 학술발굴 조사를 마친후 설립예정이었던 경주캠 본관은 아직 설계조차 끝나지 않아 본관 완공일에 많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불상의...' 강연회

불교사회 문화연구원(원장=윤호진·불교학)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최완수(연세대·사학) '간송 미술관' 연구실장을 초청해 '불상의 출현과 그 시대배경'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연회의 일정을 살펴보면 △개회 △삼귀의례 △반야심경 △연사소개 △분원 원장인사 △축사 △강연 등이다. 강연회와 관련해 윤원장님은 "경주시민과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강연회만큼 불교문화에 관심이 있는 불자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전문대

인정사정 볼 것 없다

O...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목욕골 문과대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지 11일만에 학교와의 협상에 성공했는데. 이는 9일간의 천막농성을 겪고 문과대 학생들을 점거한지 단 3일째의 일이었다.

건물밖에서 비, 바람을 맞으며 농성할 땐 본교도 않던 학교가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 이기는 척 '왜 그러느냐'고 묻는다 하니.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무소의 뿔처럼 부딪혀 가라!!"

불협화음

O...강의실에서도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가?

원호관에서 수업을 받던 중 갑자기 드릴소리가 나서 수업시간 내내 강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데, 공사는 수업시간을 피해서 해야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학교측은 조금의 배려도 않고 공사에만 열중하고, 시설관리팀에서는 이런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는데.

이에 강의를 들던 한 학우 왈 "수업시간엔 잠시 멈추셔도 좋습니다. 스피드 공사."

주객전도

O...의무자보 때문에 본교자보가 설치리를 잃었다는데.

문살달이고 하니 온방골 학생회관 곳곳에 상업성을 지닌 자보들의 출현으로 대학의 소리쟁이 대자보의 자리가 침탈당하고 있다고.

학생들에게 진정 필요한 교내의 심각한 문제, 축제, 동아리 공연등의 대자보를 한 장소에 여러장씩 붙어있는 사설학원의 자보때문에 붙임꼴이 부족하다 하니, 이에 본교자보 왈 "사설학원 열기가 높다 하되 본교자보아래 의무자보니라"

욕설경쟁

O..."자격도 없는 건의사항!!!"

학교 홈페이지 건의사항에 매일 '욕하기 경연대회'가 열린다는데. 반말은 기본이고 18, DOG BABY(?) 등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분노한 학교직원은 건의사항에 고운말을 쓰자며 글을 올리기도.

이에 본 회전문대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건의사항, "삼한 욕은 폭력 등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며 특히 청소년과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2학기 주간방송안내

시간	요일	제목	출연	목적	비고
8:10	아침	선술이 없는거	설비 생략하러	우리의 소리	오늘의 우리
		P D : 김윤기 ANN : 이연경 ENG : 서동욱	P D : 임영행 ANN : 정민숙 ENG : 이예도	P D : 이지현 ANN : 허선경 ENG : 권혜려	P D : 김승기 ANN : 김원진 ENG : 박해민
8:40	점심	Step by Step English!!	P D : 이지현 ANN : 이연경 ENG : 권혜려	이은가 뽀!	P D : 임영행 ANN : 정민숙 ENG : 서동욱
		8:40-8:55	이은가 뽀!	P D : 임영행 ANN : 정민숙 ENG : 서동욱	
12:20-12:23	점심	백상근 연봉상	POPS POPS	내게 특별한 노래	좋은 목소리로 음악속으로
		P D : 김승기 ANN : 이연경 ENG : 서동욱	P D : 이지현 ANN : 허선경 ENG : 권혜려	P D : 김승기 ANN : 김원진 ENG : 박해민	P D : 이희영 ANN : 서용석 ENG : 임주연
12:55-1:00	점심	POPS POPS	내게 특별한 노래	좋은 목소리로 음악속으로	
		P D : 김승기 ANN : 이연경 ENG : 서동욱	P D : 이지현 ANN : 허선경 ENG : 권혜려	P D : 김승기 ANN : 김원진 ENG : 박해민	P D : 이희영 ANN : 서용석 ENG : 임주연
1:30-2:00	점심	가까이	POPS ALIVE	온방골 영보기	
		P D : 김승기 ANN : 이연경 ENG : 서동욱	P D : 이지현 ANN : 허선경 ENG : 권혜려	P D : 김승기 ANN : 김원진 ENG : 박해민	P D : 이희영 ANN : 서용석 ENG : 임주연
4:20-4:23	오후	백상근 연봉상	POPS POPS	내게 특별한 노래	좋은 목소리로 음악속으로
		P D : 김승기 ANN : 이연경 ENG : 서동욱	P D : 이지현 ANN : 허선경 ENG : 권혜려	P D : 김승기 ANN : 김원진 ENG : 박해민	P D : 이희영 ANN : 서용석 ENG : 임주연
4:40	오후	대학규정	PD 기획	소초 프리뷰	여학생제
		P D : 김승기 ANN : 이연경 ENG : 서동욱	P D : 이지현 ANN : 허선경 ENG : 권혜려	P D : 김승기 ANN : 김원진 ENG : 박해민	P D : 이희영 ANN : 서용석 ENG : 임주연
4:57-5:00	오후	Step by Step English!!	P D : 이지현 ANN : 이연경 ENG : 권혜려	이은가 뽀!	서동욱
		이은가 뽀!	P D : 임영행 ANN : 정민숙 ENG : 서동욱		
영상촬영	오후	백상근 연봉상	POPS POPS	내게 특별한 노래	좋은 목소리로 음악속으로
		P D : 김승기 ANN : 이연경 ENG : 서동욱	P D : 이지현 ANN : 허선경 ENG : 권혜려	P D : 김승기 ANN : 김원진 ENG : 박해민	P D : 이희영 ANN : 서용석 ENG : 임주연

경주캠 교육방송국

동약로

고요속의 외침



“법외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거야? 빨리 치우지 못해?”

지난 14일, 서울캠 명진관에서 정각원으로 이어지는 길목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20여명 가량 되는 학생들이 X 모양으로 검은 테이프를 붙인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방적 재단 이사 선출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리고 오복원 큰스님이 설법하기로 예정된 개강법회에 참석하러 온 한 스님이 전단지를 배포하며 침묵으로 일관하는 학생들을 큰소리로 야단치고 있다.

“오늘은 이사장으로서가 아닌 조계종의 원로스님으로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문을 설하는거야. 무슨 이유든간에 옳고 그름을 떠나 종교행사는 그 나름의 성스러움을 지켜줘야 되는 거야.”

학생들의 계속되는 시위를 지켜보다 못한 스님은 “학생은 학생의 본분인 학업에 충실해야지, 이런 식의 시위는 옳지 않아”라며 학생들이 들고 있는 피켓을 잡아챈다.

올 11월에는 본교 13인의 재단 이사 가운데 현 오복원 이사장을 비롯한 6명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된다. 지난 7월 조계종 종립학교 관리위원회는 재단 이사 후보로 12인을 추천했다. 이에 총학생회는 “외부의 압력이나 힘에 영향받지 않고 학교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선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주에 열린 대한불교 조계종 총회가 본교 이사 후보 추천의 건에 대한 안건을 상정만 하고 처리하지 않은 채 종료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본교 이사 선출은 사실상 종단 내부에서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지난 해 총무원장과 총장 선출 과정을 돌이켜볼 때 이번 이사장 선출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관련 당사자들이 모여앉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는 것이 올바른 길일 것이다.

모든 구성원들이 새롭게 선출될 이 대학의 어른을 기꺼운 마음으로 환영하는 그림은 그려볼 수 없는 것일까? 답답한 마음 여누를 길이 없다.

김진아 기자 ring@cakra.dongguk.ac.kr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을 찾아

“농성장에서만 벌써 3번째 명절”

농성 4백2일째.

조계사 총무원 건물 뒤편에는 ‘국가보안법 철폐’가 적힌 플래카드와 함께 10명의 정치수배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천막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8월, 7명의 농성단원으로 시작한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은 이제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수도 10명으로 늘어났다.

김영삼 정권시절의 정치수배자는 50명도 채 남지 않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신 이후 양산된 정치수배자의 수가 3-4백 명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구 정권과 현 정권의 구별이 무의미하다고 판단, 지난 8·15일 이후 그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정치수배해제 △양심수 석방 △양심수 군 문제 해결 △한총련·범민련 이적 규정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의 5대 요구 사항을 내걸고 시작한 농성이 이제는 4백일이 넘었지만 어느 것 하나 변한 것 없이 10명의 농성단은 울해도 추석을 조계사에서 보내게 되었다. 이로써 조계사 천막 속에서 맞이하는 명절도 3번째다.

새 정권이 들어서고 ‘준법서약서’와

‘한총련 탈퇴서’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은 3번의 사면에서 번번이 제외되었다. 정부는 준법서약서와 한총련 탈퇴서를 제출해도 선별적으로 구속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으며, 이에 조계사 농성단은 조건 없는 전면해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8·15특사 때 사상전향제도 대신 등장한 준법서약서는 시행 초기부터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간의 내면까지 규제하려 하는 등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따라서 조계사 농성단은 이러한 준법서약서를 거부해 온 것이다.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째 창살 없는 감옥에서 수배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은 만약 연행되었더라면 수감생활을 마치고 지금쯤 출소했을 법도 하다. 그러나 자신의 신념을 저버리지 않고 더 오랜 시간동안 기약 없는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창규(전남대 86, 93년 남총련 의장) 농성단 단장은 “농성단 생활이 많이 힘든건 사실이지만 일정한 계기점이 주어질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농성을 해나갈 것”이라며 “개혁을 표방하는 정부라면 과거 정부의 잘못된 명을 지금이라도 벗겨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부분 96년 연대사태이후 이적으로 규정된 한총련의 간부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금도 한총련 소속 대학교의 단과대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다는 이유로 준법서약서와 한총련 탈퇴서를 강요받는 수배자가 늘어나고 있다. 오창규 단장은 “근본 원인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난립돼 있는 국보법 철폐 운동이 하나로 단결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계속되는 공안탄압에도 지속적인 국보법 철폐운동을 해야한다”고 강력하게 피력했다.

천막을 찾아간 지난 17일, 농성단원들은 추석을 맞이해 여러 재야 인사들과 가족, 동료들에게 카드를 쓰느라 분주해 보였다. 어제(19일)는 며칠 앞으로 다가온 추석을 맞이해 조계사 천막 앞에서 여러 재야 어르신들과 함께 합동 차례를 지냈다.

오래 간만에 조계사 농성단 천막은 손님들로 북적거렸다. 사발과 단식투쟁, 10만 배에 이어 다가오는 한가위 새벽에도 여느때와 같이 108배를 하며 수배해제를 위해 정진할 것이다.

김진아 기자 ring@cakra.dongguk.ac.kr

민주노총 선거를 통해 본 하반기 노동운동 전망

단병호 위원장 이수호 사무총장 당선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 담아 1천2백만의 민주노총으로



단병호 위원장

지난 9월 17일 3대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가 열렸다. 1천2백만 노동자의

희망으로 거듭나는 민주노총을 만들어내고 하반기 힘찬 도약을 지도해낼 노동자들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자리인 만큼, 대의원 대의장은 투표를 위해 전국에서 올라온 대의원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이 자리에서 2기 민주노총의 활동을 평가하고 새로운 1년 반을 만들어 갈 3대 지도부가 대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됐다.

단독후보로 입후보한 단병호 위원장과 이수호(전국교직원노조 부위원장)사무총

장은 △조직운영의 책임성 강화 △지휘부의 위상강화로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기본권 확보 △민주노총을 1천2백만 노동자의 조직적 구심으로 확대강화 △민주노총의 정체성 확립 △사회변화를 주도하여 ‘21세기 노동의 전방 제시’라는 핵심 공약을 내세웠다. 단병호위원장은 민주노총 대의원 6백80명 가운데 5백명이 참석한 이번 선거에서 3백86명의 지지(80.92%)로 당선됐으며 “당면한 과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위원장, 여러분과 함께하는 위원장이 되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말했다.

투표에 참여한 공공연맹 소속의 한국통신 노조 대의협력국장인 안영택(40)씨는 “그동안 민주노총은 조직력, 교섭력, 정치력이 부족했으며 그런 내부문제는 현장까지 영향을 미쳤다”며 “현장 조합들은 피부로 와 닿는 것을 원한다. 현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며 3대 지도부가 해결해야 할 민주노총의 과제를 제시한다. 이처럼 조직 사업의 확대 요구와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

를 제대로 수렴하는 상층 지도부의 사업결정을 요구하는 대의원들의 목소리에 신임 당면회 위원장은 “무엇보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업 작풍과 민주적 조직운영으로 60만의 민주노총에서 명실상부한 1천2백만의 민주노총으로 만들겠다”며 이후 조직사업의 방향을 제시했다.

새로운 지도부 선출로 3기의 닻을 올린 민주노총은 하반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하게 된다. 단병호 위원장은 임기 내에 반드시 주 40시간노동제를 쟁취하고 35시간 노동시간을 확보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저지 투쟁을 전면적으로 벌일 것이라며 하반기 민주노총 투쟁 방향이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강도높은 대정부 투쟁에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노총은 국가보안법 또한 이 시대 최고의 악법이며 노동자들의 투쟁과 정치세력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하고 이후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종교계, 시민, 학생, 농민 등으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속에서 노동자들이 가세함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는 전 국민적 사안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3기 지도부 출범으로 하반기 도약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친 민주노총의 이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사회부

언론비평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

신문 공신력에 편승한 판매 전략

“어! 이거 광고네” 최근 들어 묘한 형태의 광고들이 신문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즉 처음에는 기사인줄 알고 읽다가 나중에 광고라는 것을 알아채는 것이다. 형식은 기사이지만 내용은 광고인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사형 광고는 기획 광고, 특집광고, P·R 페이지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공통적으로 지면의 상단에 자세히 보아야 알아챌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글씨로 자신이 광고임을 알리고 있다.

이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일반 기사와 혼동할 수밖에 없도록 작성되고 있다. 우선 제목을 뉴스 기사처럼 작성한다. 예를 들어 모 영어 학습 프로그램 광고의 경우 ‘동화로 영어 배운 어린이, 학습 능력 뛰어나’로 제목을 달았는데, 이는 마치 문화면의 신문기사 제목처럼 보인다.

또한 기사형 광고가 한 면 전체를 차지하는 것일 경우에는 독자들이 광고임을 쉽게 알아챌 수 있으나, 하단에는 일반 광고를 배치하고 기사형 광고를 상단에 배치할 경우 그것이 광고보다는 기사로 인식되기 십상이다. 즉 신문 지면의 하단에는 광고가 상단에는 기사가 배치된다는 독자들의 통상적 인식을 노린 것이다. 어떤 경우는 신문기사의 끝머리에 작성 기자의 이름이 기재되는 것을 이용하여 작성자의 이름을 넣거나, 심한 경우에는 ‘XX일보 기획 광고팀’ 같은 방식으로 신문사의 이름을 이용하기 한다.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기사형 광고들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독자들이 하여금 이들을 광고가 아니라 신문

의 기사로 생각하게 하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이다. 기사형 광고를 이용하는 상품들의 상당수가 허위 과장 광고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럴 경우 이들이 일반적인 광고와는 다르게 독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여지를 신문사가 방조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신문사가 가지는 공신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사형 광고는 내용은 광고지만 일반 신문기사의 모습으로 위장하기 때문에 신문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공신력에 편승해서 광고 상품의 신뢰를 높이려는 방책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기사형 광고는 IMF 이후 신문사들간의 광고 수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독자들을 오도하는 이러한 행위는 눈앞의 광고료 수입보다 더 큰 언론의 신뢰도 추락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신문은 방송과 달리 언론 매체로서 정확한 정보와 공정한 해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신문 독자들이 지불하는 구독료에는 기사뿐 아니라 광고에 대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독자들은 기사뿐 아니라 광고에서도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기사형 광고는 신문사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변명하더라도 독자들에게 대한 기만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강 하 용 사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동국만평

삼철공



늘 해가워만 같기를... 부정한 학교일은 잠시 잊어두게나. 그동안 무슨 일이...? 와! 고행까지!

북-미 베를린회담 논평

논단

한반도 문제해결 낙관은 시기상조



정용길
사회대 정의과 교수

북·미 베를린협상의 타결로 한국은 물론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어느때보다 분주하다. 일단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를 막은 미국은 지난 3월에 개최된 북·미 4차 회담이후 중단했던 전문가급 미사일 협상을 재개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및 관계개선 문제를 논의할 고위급 정치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논의들은 지난 15일에 발표된 페리 보고서의 통하여 '3단계 접근방안'과 '5개 정책건의'의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페리보고서의 핵심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종식시키기 위해 미국은 북한과의 대사급 수교를 포함하여 대북관계를 정상화시킬 용의가 있다'는 내용이다. 이번 북·미 베를린협상의 타결로 인해 결국 미국이 북한과 수교를 하게 되면, 북·일 국교정상화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야 비로소 한반도에서 냉전구조의 틀이 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미 1990년에 '한·소수교'가 실현되고, 1992년에 '한·중수교'가 이루어졌을 때부터 이른바 남북한의 '교차승인' 문제가 거론되었으나, 김일성의 사망, 북한의 경제·식량난 등으로 교차승인문제 보다는 오히려 국제사회는 북한의 붕괴 또는 북한체제의 연착륙 유도 등의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특히 북한은 남한을 소외시키면서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하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을 취하는데 이것은 월맹이 미국과의 직접적인 파리 평화회담을 통해 베트남을 공산화 통일시킨 베트남 통일방식을 염두에 두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북한은 끊임없이 미국의 관심을 끌만한 문제를 일으키며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협상태이블에 나오도록 하였고, 결국에는 '북·미 수교'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의 유지를 위해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의 개발·시험발사, 그리고 수출을 막고자 하는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도구로 핵과 미사일을 택하여 접근하였다. 바로 이것이 남한을 소외시키고 북한이 미국과 직접협상을 하는 구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안보상황의 직접 당사자는 남한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한을 자극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는 한편, 또 한

편으로는 서해의 연평도사태를 유발시키거나 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문제를 제기하여 의도적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의 존재를 대수롭지 않게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95년 5월 핵확산금지조약을 체결하고 북한의 핵개발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물론 미국이 단지 NPT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북한과의 수교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일본보다 먼저 북한에 교두보를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으며, 또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다목적 경제장치일 수도 있다.

일본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가 우선 그들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고, 특히 경제적 이익에 민감한 일본은 미국이나 남한보다 유리한 고지를 북한시장에서 점령하고자 정경분리 원칙으로 북한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분명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직도 북한이 추구하는 것은 우리들처럼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나 평화체제 구축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의 최종목표는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이다. 아직 그 시기가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미국·일본과의 관계개선 내지 수교를 할 뿐이다. 그러므로 북·미 베를린협상의 타결로 한반도 문제해결에 대해 낙관론을 펴는 것은 정말 시기상조이다.

이번 북·미 베를린회담의 타결로 포괄협상의 시동이 걸리게 되었다.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와 북·일간의 수교협상에 따른 거액의 배상금은 북한체제의 존망이 걸려있는 일이고, 이로 인한 교차승인은 결국 동북아질서의 재편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한반도에 대한 주변 4대 강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기회이기도 한 것이다. 결국 이것은 냉전체제가 보다 훨씬 치열한 남·북한간의 외교경쟁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한반도에서 통일과정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한층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이 북·미 베를린협상의 타결을 보면서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진단하는 것이다.

한반도문제 해결의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하다. 이번처럼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일에서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북·미, 북·일간의 협상과정에서 관찰자적 역할이 아니라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당연한 주체로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북정책 및 통일외교를 펼쳐야 한다. 이것만이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의 길이다.

일관성있는 대북 포용정책 유지해야

베를린회담과 최근 흐름

최근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와 동북아 평화체제 수립에 전기가 될 만한 일들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 12일 북미 베를린회담은 한반도 현안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94년 제네바합의 이후 북미회담의 최대 성과물로 기록될 만하다.

특히, 회담 이후 북미간의 관계정상화를 위해 포괄적 접근정책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페리보고서의 공개와 미 행정부의 대북 경제제재 일부 해제 조치 발표는 북미간 상호 일괄타결에 의한 포괄적 접근 구상이 '실행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향후에도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북미 수교 등 동북아시아 교차승인체제 완성과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큰 계기로 역할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베를린회담과 북한

북한은 이번 회담을 통해 우선 미국의 일부 대북경제제재를 실제로 해제토록 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올렸다. 북한이 현재 겪고있는 식량과 경제 위기의 한 원인이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때, 미 행정부가 발표한 이번 조치는 비록 상징적인 의미가 크겠으나 상호신뢰 회복과 향후 추가해제의 흐름을 조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북한의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북한에게 이번 베를린회담의 결과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로 자신의 체제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사실 북한의 본질적 관심은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해 정치·군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체제 생존을 보장받는 것에 있다. 그 방법상의 합리성 여부를 떠나 이를 위해 북한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와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요구해왔고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왔다. 실제로 페리보고서에서 핵,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협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미국은 대북수교를 포함해 관계정상화를 할 용의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셋째, 이번 베를린회담과 최근 일련의 흐름은 북한의 대 국제사회 관계회복과 교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 뿐 아니라 일본과 유럽 등 다른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

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작년 북한의 광명성1호 발사를 빌미로 TMD 추진 등 군사대국화 계획에 전념하면서 대북 관계를 단절하다시피 했는데 이번이 다시 북일관계 정상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한 내부적으로 온건파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이번 회담의 성과라든 성과라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현안과 냉전구조 해체를 추구하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정부의 대응

그렇다면 우리정부는 베를린 회담과 그 이후 진행된 일련의 흐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남한 정부는 무엇보다도 그동안의 대북 포용정책을 더욱 일관성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북한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지금의 북한은 외부와의 관계개선과 교류를 통해만이 생존할 수 있는 상황으로 조심스럽게 개혁,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반대로 북한으로 하여금 내부단속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북한의 대외 관계개선은 필연적으로 내부 변화를 수반할 것이지만 그 과정의 수준, 속도 그리고 방향을 철저히 북한 내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그것은 남북 당국간의 관계개선이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설사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늦을 뿐'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오히려 우리 정부는 최근 일련의 흐름이 궁극적으로 한반도 냉전해체와 동북아 평화체제 수립과 남북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을 확고히 인식하고 국내적으로도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통일운동세력에 대한 활동보장 등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김학묵
자주평회통일 민족회의

사설

모집단위 광역화와 시행착오

지난 5월 10일자 본지 1면 기사인 총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던 본교의 모집단위 광역화 계획에 대하여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문과대 학생회는 학장실 점거 농성을 전개하고 있으며, 총학생회는 광역화를 반드시 철회시키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경주캠퍼스 학생회 또한 모집단위 광역화 철회를 중심으로 한 교육개혁투쟁을 2학기 중심사업과제로 정하는 등 양캠퍼스의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반대여론은 계속되고 있다.

사실 모집단위 광역화 계획은 교육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함께 그 동안 학교정책당국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지면서 일반 학생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학사행정의 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것이 불가능하고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번 모집단위 광역화가 학생들에게 알려지는 과정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단 한차례의 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내 민주적인 의견수렴이라는 기본적인 절차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학생회 또한 이 점을 가장 섭섭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지난 17일 열린 서울캠퍼스 문과대 학생대표와 학교당국의 대화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철회'와 '강행'이라고 하는 서로간의 입장을 전달하는데 그치긴 했지만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학교 관계자의 긍정적인 의견제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자는 학생회의 요구는 이런 점에서 교육개혁의 조기정착과 이를 통한 동국의 질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교당국에게도 충분히 경청할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집행과정 투명성 확보돼야

연세대와 고려대, 한림대 등을 비롯한 20여개 대학들의 학생들이 기성회비와 수업료 통합을 둘러싸고 학교측과 대립하고 있다.

현재, 이들 각 대학의 학생회들은 그동안의 기성회비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하며, '정보공개 신청서'를 각 대학에 제출한 상태지만 어느 하나 공개요구에 대답한 대학이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연세대는 기성회비 납부의 강제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준비중에 있는데, 이같이 기성회비 문제를 학교측이 법정공방으로 몰고갈수 있는 이유는 지난 63년에 제정된 고등교육법 때문이다.

그 조항에 포함된 "기성회가 사학의 취약한 재정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기타 납부금을 거둘 수 있다"는 규정으로인해 학교측은 현재 기성회의 비용은 등록금과 동일하다는 등식의 사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제와서 기성회비가 등록금으로 통합되는 형식적인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아닐것이다. 학생들도 현재까지 사학의 기성회비는 등록금과 같은 용도로 쓰였다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인정해 온 것이 사실이며, 지금에 와서 이런 논쟁을 벌인다는 것도 어찌보면 우스운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학생들은 무엇보다 이제까지 사학의 의사결정과정 등에 대한 불만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터뜨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이제까지 학교측과 학생들간에 일어난 마찰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보다 예산집행 전과정에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한 점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된다. 본교도 아직까지 등록금에 기성회비를 통합하지 않았을 뿐이지 예산집행과정은 타대학과 발반 다를바 없으며, 현재 일어나려는 각 대학과 학생들간의 법정 싸움 또한 본교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교를 비롯한 각 대학들은 고등교육법에 기타 납부금을 거둘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예산집행과정을 불투명하게 하라는 규정은 상위법인 헌법에도 없음을 명심하고 학사행정을 더 원만하게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연재소설 (3)

계론의 필통

글 이우상 그림 삼철공

계론에게는 신기한 물건들이 많았다. 검정 먹고무신이 가장 보물인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경외감마저 감도는 것을 그는 갖고 있었다. 칼집이 달린 칼, 인절미 크기만한 지우개, 포플러처럼 죽죽 뺨은 길쭉한 연필들이 가득 담긴 큼직한 필통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문방구에서는 살 수 없는 물건들이었다. 껍데기 부러워하는 눈치들이었지만 아무도 내놓고 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계론이 지닌 모든 소유물들에 대해서는 공인된 평가가 걸려 있었다.

“아이노구 물건은 건드리지도 말아라. 양갈보 귀신이 붙어 있다.”

“취도 받으면 큰일 난다. 양갈보 귀신이 따라 온다.”

“양갈보 귀신 들면 금방 미쳐 뿌린다카더라. 죽을 때 빨가벗고 죽는다카더라.”

근원이 불분명한 평가지지만 덕태, 용수, 만식이 등이 눈에 힘을 주며 전파했다. 우리들은 그것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신앙했다. 계론의 물건을 만져보고 싶은 욕망은 그렇게 제어되었다. 보스적인 덕태가 만들어진 구호인지 어른들에게 전수받은 말인지는 모르지만 귀신에 대한 공포만은 우리들에게 명



노랑머리에서는 술술 꼬부랑말이 나올까
아이가. 양놈들은 꿈도 영어로 꾸다카던데.

확한 명제였다. 밑주를 담아놓는 때문에 금줄을 쳐놓는 술수보다 훨씬 엄한 금기였다. 미친년, 미친놈이 직업인 이들이 마을에는 두엇 돌아다녔고 그들의 행태와 그들이 겪는 수모와 능멸을 우리들은 수시로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친다는 것은 자신의 일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방어력이 우리들에게 견고했다. 땃속에 절은 색동저고리 분홍치마를 입고 괴기스런 웃음과 노래를 부르며 장터를 돌아다니는 욕심이, 천하의 명포수라도 되는 듯이 짐승 가족으로 열기실기 엮은 것을 몸에 두르고 목총을 거꾸로 매고 원수를 갚는다고 소리치고 다니는 이도령, 그들처럼 미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두려움이었다. 그들에게 양갈보 귀신이 붙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미친다는 형상의 증거물을 바로 눈앞에 목격하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숙제를 안 해서 오지게 얻어맞는 것보다 미친다는 것이 훨씬 더 가혹한 형벌로 인식되었다.

우리 반에서 유일하게 노랑머리, 파란눈을 가졌다는 이유로 계론은 외판생이었다. 아니 저만

치 떠밀쳐진 결레조각이었다. 그의 보물상자인 커다란 필통 속에 들어있는 초콜릿, 검 따위는 공식적인 위력이 없었다. 변소 뒤쪽에서 간혹 검 한두 개를 얻어잡는 약삭빠른 축들이 있기는 했으나 그것이 그를 우리와 대등한 위치로 부상시키는 장치가 되지 못했다. 서로 자신은 그런 일이 없었노라고 공인받는 일에 몰두할 뿐 계론의 호의를 변호하는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다. 선생님마저 그를 아이노구라하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게론이란 그의 이름은 출석부 맨끝줄에 외로이 달려 있을 뿐 만들어질 당시부터 기능을 상실한 기호에 불과했다. 아뵤한 웃음을 띠며 ‘아이노구 이거 꼬부랑글씨로 읽어봐’라고 선생님이 그를 지적할 때면 우리들 모두는-선생님을 포함해서- 그에게 난처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에 잔뜩 부풀어 올랐다. 멀쩡한 국어책에는 꼬부랑글씨가 적혀 있지도 않았고 ‘나라를 구한 소년’이란 단원의 내용을 주석에서 영어로 번역해서 읽을 능력이 애초부터 그에게 없었다. 불가능한 요구를 강요하는 선생님의 부당한 지시에 항의하는 도덕심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로지 그가 난처한 구

덩이에 빠져 허위적거리는 것을 즐기려는 호기심만 자욱했다. 아이노구 필해! 빨리 꼬부랑글씨로 읽어봐, 늘글거리는 웃음을 더욱 넉넉하게 섞어 선생님이 소리치면 아이들은 웅성거리며 분위기를 부추겼다. 미국놈이 그것도 못하나. 노랑머리에서는 술술 꼬부랑말이 나올까 아이가. 양놈들은 꿈도 영어로 꾸다카던데. 그를 변호하는, 그런 상황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한마디라도 있었다면 그는 왈각 울음을 터뜨리며 울어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목소리를 기대할 수 없음을 알고 있는지는 그는 북받치는 응어리를 용케도 참고 있었다. 터지기 직전의 종선처럼 그의 얼굴이 빨강다못해 창백해져서야 그 놀이는 슬그머니 방향을 돌린다. 굳은 악수를 하는 그림이 그려진 포대기를 뜯어 덩어리진 분유를 큰 가마솥에 넣고 끓인 우유를 선생님은 막걸리를 들이키듯 늘 대접으로 마시곤 했다. 계론을 꺾박하는 것과 원조물자인 전지분유를 게걸스럽게 들이키는 것과는 어떤 동질성 혹은 어떤 상관성이 있을까.

표준화가 주도하는 기술 발전-MPEG의 경우

전자 및 정보통신과 관련된 기술 발전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면, 제 2차 세계대전까지는 정부나 정책의 주도로 발전되었고, 그 이후 1980년대까지는 시장 주도가 기술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1990년대 들어 최근에는 표준화에 의해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멀티미디어의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작업 중에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꼽히는 MPEG의 표준화가 바로 그것이다. MPEG-1이 CD-ROM 등 주로 저장용 표준화라면 MPEG-2는 방송, 통신, 그리고 저장 등 광범위한 응용을 위한 비디오 및 관련 오디오의 압축부호화에 관한 표준이다. MPEG-2는 1994년 표준안이 완성된 이후 디지털 TV와 HDTV 그리고 DVD 등의 디지털 비디오·오디오의 전송 및 저장에 폭넓게 응용되고 있다. MPEG-2에 적용된 영상 데이터 압축방법은 비디오를 화면 단위로 압축하는 제 1세대 영상압축의 가장 최적화된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무선 등 여러 매체와의 상호 운용성을 증대시키고, 높은 압축율에서 화질의 저하를 막고, 영상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멀티미디어의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영상 내에 존재하는 의미 있는 객체 단위로 압축하는 새로운 압축 표준이 요구되었다. 이와 같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표준화 작업이 바로 MPEG-4다. MPEG-4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저장된 디지털 영상 데이터의 내용기반 검색을 위해 데이터에 부착하는 태그에 대한 표준화 작업인 MPEG-7이 진행되고 있다. MPEG-1, 2, 4가 데이터를 감축하기 위한 영상 및 음성 데이터의 압축을 주목적으로 한다면, MPEG-7은 영상내 색상의 분포나 움직임 정보 등 특징정보를 추출하여 부호화하는 것에 관한 표준이다. 표준화를 위한 국제회의에서는 그 당시까지 실현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수 있는 최첨단의 기술이 제안되고, 제안된 기술

에 대해 경쟁과 합의의 과정을 통해 표준화로 채택된다. 표준으로 채택된 기술에 대해서는 향후 상당한 특허권 수입이 보장되므로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연구소와 대학에서 표준화의 채택을 위한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일단 완성된 표준안에 대해 그 표준을 실행할 반도체 칩과 그 표준에 의해 전송될 각종 매체와의 접속 방법, 그리고 그 표준을 활용한 응용제품의 개발에 많은 기업들이 치열한 개발 경쟁을 하고 있다. MPEG 이외에도 전자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 여러 표준화가 완성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표준화가 기술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시기에는 전자 및 정보통신 엔지니어로서 관련 분야의 표준화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기술개발을 주도할 패러다임은 문화로 보고 있다. 문화가 어떻게 기술개발을 주도할지 주목해 볼 만하다.



원치선
공과대
전자공학과 교수

‘아름다운 성과 사랑을 위하여’ - 명사초청강연회

“진정한 성(性)은 자기를 사랑하는데서 시작된다”

열린 눈으로 당당하게 ... 지난 15일 안혜성씨 강연

“한 여학생이 늦게까지 동아리 선배들과 술을 마신후 가방을 가지러 동아리방에 갔어요. 그때 그 여학생을 본 어떤 남학생이 성적 충동을 느껴 그뒤를 따라가서 느닷없이 키스를 했다면 이 경우 성폭력일까요?”

지난 16일 본교 서울캠 중강당에서 한국어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연구실장인 안혜성씨가 학생들에게 던진 질문이다.

“당연히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그랬으니 성폭력 아닙니까?”

“여학생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학생이 가만히 있었다 해서 그 남학생의 행동에 동의한건 아니잖아요”

이처럼 학생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었다. 이에 안혜성씨는 “아무리 여학생이 저항을 하지 않았다 해도 여학생이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입었다면 어디까지나 성폭력에 해당돼요”라고 답변했다.

성폭력예방을 위해 ‘아름다운 성과 사랑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진행된 2시간 남짓 동안의 강의는 학생들의 높은 관심으로 그 열기가 뜨거웠다. 이번 특강은 성의 개념, 성폭력에 대한 이해, 성폭력 관련법·제도, 성폭력 예방법 등을 학생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하고 간단한 자기진단 테스트를 하는 등 재미있고 쉽게 성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리였다. 성폭력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의 정립을 위해서

안혜성씨는 자기에와 절제, 자신의 욕구를 알고 이를 표현, 타인의 욕구 존중, 성지식 알기를 강조했다. “누구나 쾌락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쾌락에 이끌리지 말고 방법을 익히고 조절하는 일이 중요해요”라며 학생들에게 자기자신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당부했다. 또한 성폭력 전담기관 및 피해자들의 심리 치료를 위한 상담기관 등 사회제도가 시급히 확충돼야하며 성폭력은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자 전 사회적인 문제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안혜성씨는 원치 않는 성적 접촉 시 우유부단한 태도는 금물이라고 했다. “아무리 애인사이라도 Yes, No를 분명히 하세요.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당황하지 말고 현명히 대처하도록 하세요”라며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처지를 고려해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강의를 들은 한 학생은 “이제까지 ‘성(性)’ 하면 이성에 대한 감정을 생각하고 은밀한 것으로만 인식했는데 이제는 나 자신부터

사랑하며 당당히 성을 말할 수 있다”며 많은 사람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날 강연은 지금까지 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회풍토속에서 억압된 성교육만 받아왔던 학생들에게 성에 대한 열린 시각을 제시해 주는 자리였다.



〈영〉
sadam@cakra.dongguk.ac.kr

-영화편-

‘나라야마 부시코’

“나라야마 부시코”는 죽음과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태산의 침묵처럼 무게있게 내장하고 있다



1982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나라야마 부시코'는 일본판 '고령자'이라는 특이한 소재의 영화이다.

칸느는 동양의 섬나라에 있는 노감독 이마무라 쇼헤이에게 두번 고개를 숙였다. 한번은 1982년 '나라야마 부시코(The Ballad of Narayama)' 또 한번은 1997년 '우나기'에 손을 들어주었다. '나라야마 부시코'는 해외영화제 수상작이라는 경력

에 힘입어 작품의 질을 검증받았다는 상투적인 평가를 무색하게 할 만큼 색깔과 힘이 있는 영화다.

우선 젊은 세대가 살아남기 위하여 살아가는 노인을 폐기처분하라는 '기노전설(養老傳説)'이라는 소재적 특이함이 눈길을 끈다. 그러나 무수한 작품들이 소재에 승부를 거는 가벼운 표피성에 머물고 있다면 '나라야마 부시코'는 죽음과 삶에 대한 깊이있는 성찰을 태산의 침묵처럼 무게있게 내장하고 있다.

오린(사카모토 스미코분)은 올해 예순 아홉인 노인이지만 아직 건강하다. 이 고장은 옥수수나 감자에 의존하는 자급자족의 경제권이므로 해묵은 식량난을 겪고 있다. 그 해결책은 나이 많은 노인을 한 입을 단다는 차원에서 나라야마의 산 속에 유기하는 풍습이다.

자급자족 경제는 먹고 입고 잔다는 기본적인 생존조차 위협받는 궁핍함을 드러낸다. 아울러 궁핍함은 야생적인 본능이 날 것으로 살아있는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다츠헤이의 동생은 야생의 풀 속에서 동물적으로 여체를 탐하며 이는 두마리 뱀이 서로 뒤엉켜있는 인서트 쇼트를 병치 몽타주한다. 이마무라 쇼헤이는 동물의 인서트 쇼트를 즐겨 사용한다. 개구리가 서로 얽혀있거나 부엉이의 눈이 클로즈업되고 개들이 서로 교접하는 등 동물의 세계가 인간의 이야기 속에 불편하지 않게 편입된다. 이 동물배우의 등장은 화면의 풍부함이라는 전략과 아울러 문화와는 담을 쌓은 인간의 야생적 본능을 담아내는 데 친화적인 소도구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나라야마 부시코'가 다루는 세계는 인

간과 동물이 수간을 하고 도둑질한 사람을 생매장하는 칼날같은 폭력성과 수성이 팽배하다. 이들의 행태는 아반에 가까운 세계로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이 아반의 시절에 인간적인 품위와 향기를 발산하는 인물이 끼여있다. 바로 나라야마 산에 버려져야할 운명을 타고난 오린이다. 오린은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쇠약함을 알리기 위해 돌에 튼튼한 이를 깨버린다. 나이 많은 아들(오가타 켄 분)을 결혼시키거나 새로 들어온 며느리에게 고기잡는 법을 전수해준다. 그리고 오린은 가난한 며느리의 가족을 위해 없는 식량을 털어내어 물레 도와준다. 관객은 스스로 착하다고 말하는 악인과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선인을 만나게 된다. 전자보다 후자가 늘 불행에 처하게 되며 그렇게 공포와 연민을 느낀다.

오린은 스스로의 가족과 타인을 위해 약한 행동은 티끌만큼도 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무 건강한 오린이지만 죽음의 고장인 나라야마로 떠나야 한다. 오린은 담담하게 의식을 마치고 나라야마로 간다. 해골과 까마귀 떼가 몰려오는 나라야마에 도착하여 다시 산을 내려갈 아들을 위해 자신의 도시락을 지게에 걸어준다. 다만 그 하나의 사소함에 우리의 감정은 움직이게 된다.

눈물처럼 눈이 산을 뒤덮는다. 살아있는 자들은 오린의 죽음을 축하하는 것이라고 위안하며 식사를 한다. 카메라는 오린의 가족이 살고 있는 눈덮인 마을을 롱쇼트로 잡으며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문학산 영화평론가·가이대 강사

새로운 '대학문화운동'으로

다양성 존중·공동의 장 마련... '문화적 권리' 확장

새로운 흐름은 한 마디로 말해서 학생운동이라는 진부한 틀에서 '대학문화운동'이라는 새로운 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학생운동이 여전히 정치적·경제적·이데올로기적 문제설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보다 폭넓은 삶의 구체적인 모습의 변화 쪽에 그 실천 방향을 두는 것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이는 곧 인식론적 단절임과 동시에 전환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서 과거 학생운동이 정치투쟁 혹은 등록금 문제의 경제투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이제는 대학의 실제적인 모습을 바꾸려는 정치적이면서 동시에 문화적인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90년대 문화 담론의 확장으로 인해서 일상문화의 강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일상문화의 강조는 미시적인 문화적 실천들을 살펴보면서도 동시에 그 일상을 구성하는 틀 혹은 구조를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일상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문화정치적 관점이다. '문화정치'는 문화와 정치의 접합을 의미하며, 문화와 정치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동등성과 상호침투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대학문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현재의 대학사회는 아무런 원칙 없는 학부제 실시, 신자유주의적 교육·학문 정책, BK 21 등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학문화는 과거 80년대식의 동아리 중심, 장르 중심의 활동에 국한해서는 안된다. 동아리 활동에 국한하는 문화적 실천은 전체 대학사회를 바꾸는 문화정치적 관점을 도의시키는 것이 때문이다. 예를 들면, IMF 이후 청년실업문제가 총학생회의 중요한 이슈가 된 것도 취업난은 곧 대학사회의 황폐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1학년때부터 취업준비에 매달리면서 적극적인 창조적인 동아리 활동 혹은 문화적 실천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제는 대학문화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실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대학문화는 더 이상 동아리 활동과 총학생회 등의 행사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즐기는 다양한 문화적 실천을 수행하며, 동시에 그러한 실천을 가로막는 학교측의 수많은 규제들과 교육제도도 고쳐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학생들이 대학의 주인으로서 '학생권' 혹은 '학생권' 등의 문화적 권리를 확장하는 것이다.

대학의 물리적인 공간을 변혁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대학문화운동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대학사회는 언제나 상급대중문화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곳이었지만, 지금의 대학사회는 대중문화와 자본으로부터 이미 잠식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의 신체에 각인된 그것들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속은 쓰리지만 그것들을 끌어안으면서 극복하는 새로운 문화적 실천들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최근 대학문화의 죽은 운운하는 것은 이러한 문화적 실천이 충분하지 못해서일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문화적 실천을 위해서 우리는 소수·하위 문화적 실천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렇다고 각자가 '떨리는 대로' 하자는 말은 아니라 대학 내의 다양한 세력들을 네트워크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

학문화를 구성하는 다양한 문화적 주체들, 즉 총학생회 문화위원회, 각 언론사 문화부, 동아리연합회와 개별 동아리,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여러 소모임 등이 함께 모여 고민을 논의할 수 있는 공동의 장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대는 80년대식의 공동체와는 다른 형태인데, 이처럼 최소한의 네트워크가 필요한 것은 학교당국, 교육부 등의 반문화적 제도 등에 맞서 싸울 때는 개별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항의방문과 피켓 시위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정확한 데이터에 입각한 대응논리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학문화운동은 대학이 갖는 공간적·세대적·네트워크적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학사회를 자율적 삶의 공간으로 구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권경우

문화평론가·서울문화이론연구소



90년대, 대학문화는 과연 대중문화와 차별을 갖는가. 본사 문화부는 그동안 '왜 다시 대학문화인가'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총 3회의 기획을 마련했으며 이번 기획을 끝으로 본 시리즈를 마무리 한다.

- 1. 대학문화의 모습
2. 대학문화의 정체성
3. 대학문화의 대안찾기

지난 기획은 대학문화의 정체성을 그 나름의 저항성과 실험성에서 찾아야 하며 이를 통해서 현재의 판(field)의 흐름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끝맺었다. 이번 기획에서는 대학문화의 새로운 흐름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살펴보려고 한다.

편집자

서울캠 동연주회 '왜 다시 대학문화인가'

대학문화 고민의 시발점·대안모색의 장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캠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는 '왜 다시 대학문화인가?!'라는 주제로 거거리마당 '동악의 숨겨진 1cm를 찾아라' △이야기마당 '강연회 및 토론회' △영화 상영회 등을 진행했다. 비록 대학문화에 대한 고민의 주체가 모든 학생이 아닌 일부 동아리 소속 학생들로 국한되고 강연회가 취소되는 등 행사진행의 미흡함도 있었지만 동연 박종근(영문(야)·3)회장이 "이번 자리가 대학문화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시발점이 되어 많은 학생들이 대학문화에 관심을 갖고 생각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듯 학생들에게 '대학문화는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던져주는 계기가 됐다.

이런 행사는 99년 현재 대학문화의 단상과 현실을 보여주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의 자리였다.

거리마당 대학문화에 대한 동악인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자리로 3일내내 진행된 거거리마당에서는 학생회관 화장실에 붙여놓았던 '떨어내기 한판'과 지난 동아리 설문조사의 결과를 공개했다. 화장실의 '힘' 속에서 생선된 대학문화에 대한 단상들인 '떨어내기 한판'에서는 '열정, 아마추어...그게 대학문화' '대학문화! 새로운 것을 접하는 신선한 곳 아닐까요? 항상 도전의 자세로 말입니다' 등부터 '대학문화는 없다' '대학 4년 술마신 기억뿐...' 등

회의적인 입장까지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였다. 또한 '동악공간 有感'을 도서관앞에 마련해 본교의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해 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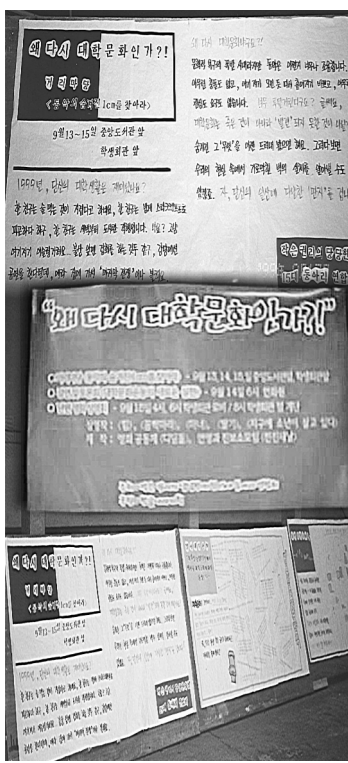
이야기마당 행사 둘째날인 14일, 강연회와 토론회가 예정됐었는데 강연회가 취소돼 6시 동아리연합회실에서 토론회만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우회, 스키부, 사우회, 예장분과동아리, 동국 포스트 등이 참석해 이론적 접근이나 설명회와 아닌 각자의 머리와 가슴속에 움츠리고 있던 이야기들을 짚어 내는 시간을 가졌다. '대자보문화' '뒷풀이' '락페스티벌' '종이거울(날찍이)' '쇼핑(명동

등에 인접)' 등이 동악의 문화로 자리잡았다. 평가와 함께 앞으로 더욱 다양한 대학문화의 위해 학내의 공간활용, 아마추어리즘의 도전, 탈소비지향적 문화 등을 추구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영화상영회 15일에 진행된 영화상영회에서는 본교 영화공동체 '디딤돌'의 '힘' '꿈짜마라'와 연영과 진보소모임 '전진세발'의 '떨기' '바너' '지구'에 소년들이 살고 있다'를 학생회관 소극장과 학생회관 옆 계단에서 상영했다. 이번 상영된 영화들은 대학생들의 자유로운 창작으로 제작된 10분남짓의 단편영화를 '지구에서...'에서는 현재 사회의 모순점을 비판했고 '힘'은 권력주의를 풍자한 내용이었다. 5편의 작품 모두 대학생들의 참신하고 실험적인 시도의 결과물이라는 것에 그 의미가 크다. 그들의 창작물을 같이 공유하는 가운데 대학문화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영)

sadad@cakra.dongguk.ac.kr



학교안에서

21세기 세계질서와 지역주의

세계정치연구소 후원, 본교 서울캠 사회과학연구원 주최 학술세미나. 제1부 '21세기 세계질서의 정치경제학' 제2부 '21세기 세계경제와 지역경제통합'으로 진행된다. 20세기를 지배했던 세계질서의 대조류를 짚어보면서 21세기의 신질서를 진단해보는 자리가 될 듯.

다음달 1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캠 90주년기념문화관 제3세미나실에서.

송편배우기·사랑나누기

'손을 깨끗이 씻고 계산관으로 오세요' 본교 서울캠 여학생들이 마련한 송편배우기·사랑나누기 행사. 송편을 배우고, 정성껏 빚은 송편은 홀로 지내시는 할아버지·할머니께 전해드린다. 불우한 이웃을 도우며 잊혀져 가는 우리 고유문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될 듯.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서울캠 계산관 2층에서. 문의 2260-3056

허탕

경주캠 한의대 동아리 '애오라지'의 제1회 정기공연. '감옥같이 작은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일상을 탈출하라'는 주제로 유머와 감동을 준다. 일상을 탈출하고 새로운 삶을 느끼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환영. 오는 20, 21일 오후 2시, 6시. 경주캠 소강당에서.

학교밖에서

전국대학생 학술연구 발표대회

대학생들의 학술능력 함양과 학구적인 건전한 대학문화 창달을 위해 교육부가 마련한 제24회 전국대학생 학술연구 발표대회.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전국 4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 중 소속학과 지도교수의 추천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대상 분야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치·약학, 농·수·해양학이다. 접수는 오는 30일까지 개인별 우편 혹은 인터넷으로 한다.

오는 11월 27일, 서울대학교 호암 컨벤션 센터에서. 문의 880-5478 또는 http://plaza.snu.ac.kr/~css

한국의 달마와 우리 그림전

한국의 달마와 침 발간기념 담 일 김창배 개인전. 1백8달마의 모습을 소재로 하여 가장 한국적인 달마스님의 모습과 마음을 표현하였으며 스님들의 생활모습도 화폭에 담았다. 서울전에 이어 제주해변공영장 미술관에서도 다음달 18일부터 순회개경.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한국일보사 백성기념관에서. 문의 736-7445

▲힘센 아이가 약한 아이를 괴롭히고 있다. 조금 뒤 그보다 더 힘센 아이가 다가와 말했다. "야! 너 뭐하나, 왜 사람을 괴롭히고 그래!" 이에 괴롭히고 있던 아이 말하길 "그냥! 심심하잖아." "뭐? 심심해서? 너무 심한거 아니냐" 순간 더 힘센 아이는 화를 내려고 한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다가 "아니지, 재네 집은 부자고 게임 CD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힘없는 애는 내게 해줄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잖

아." 금세 마음이 변한 아이는 말한다. "나도 같이 괴롭혀라." ▲우리 민족은 36년 일제의 지배하에서 약소민족의 서러움을 톡톡히 맛봤다. 이러한 서러움을 당한건 우리가 일본에게 잘못해서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서도 아니다. 단지 힘이 없었다는 것. 당시 제국주의 시절 일본의 왕성한 이적적 지배력을 포효하기에 대한민국이 적했기 때문이었다. 그로인해 평소 축구는 거

뜰때도 안보던 사람들이 한·일정만은 목숨걸고 보게되고 일본이라는 말만 들어도 격분하는 현실을 초래했다. ▲독립선거 실시로 사실상 독립이 확정된 동티모르가 기쁨을 나누기도 전에 불길에 휩싸였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인도네시아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태가 이쯤 번져가는데도 미국을 비롯한 열강들은 침묵으로 일관해 오다가 여론에 밀려서 이제서야 평화유지군을 투입했다. 얼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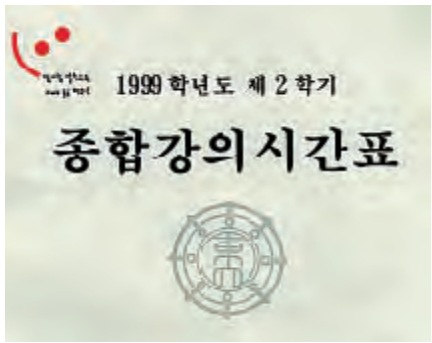
'세계평화'를 외치며 코소보를 침략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결론적으로 자기들에게 이득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현대 사회에서 정의란 찾아보기 힘들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고 유리하면 정의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이 된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정산대 할머니들 문제에 대해 보상하라고 끊임없이 촉구하지만 베트남당 시 대량학살에 대해서는 지난 일이라며 모

른척이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말도 있다. 못지 못할 일이다. 지금도 열강들은 세계평화를 외치고 있으며, 우리는 권리로써의 귀국을 축하하면서 당시 일본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일이 이쯤되다 보니 요즘 아이들을 이기적이라 말하는 어른들의 우쭐들은 당한 것이라 생각된다. 황성구 편집부장 dg1971439@mail.dongguk.ac.kr

이기주의

소나기

75분 강의제 실시 그 이후



△쉬는 시간이 언제지 모르겠다. 쉬는 시간 돌리도!!!

△2주 이상이 지난 지금도 헛갈린다. 내 머리가 나쁜건지 아님 제도가 나쁜건지. △열심히 해야지 않겠어요?

△왕짜증! △아직까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밥먹을 시간도 없고 수업 준비하기도 어렵다.

△75분 강의제? 교양은 180분, 전공은 90분 강의인데... 아~ 서울캠퍼스 얘기구나. ^^

△방금 하고 왔다. 내 기본 알재? 저주의 A308

△쉬기에는 어중간... tui 수업은 죽음이야.

△75분 강의제의 편의는? 60분 강의 전과 같다.

△짜증나! 쉬기 뭘 쉬냐? 60분 수업으로 다시하라.

△75분 강의로 인해 공간은 많아지고, 시간표짜기도 힘들고, 수업시간에 쉬지도 못해 학생, 교수 모두 힘들기만 하다. 원래 시간표로 돌려봐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75분강의는 75분 강의 이거늘, 어디가 시작이요. 어디가 끝인지, 정시수업은 30분 시작이요, 30분 수업 시작은 정시 수업이라 교수님도 여러동찰하시고 학생들은 책 읽고 해메이더라. 길 잃은 학생은 어찌 할꼬?!

△너무 성급한 시작.

△혁! 85분 수업을 하다니...

△시간 잘 가는데.

△너무 좋다! 지루하지도 않고 시간 소비도 하지 않는다.

△15분 더 잘 수 있어 좋다

△짜증 난데요... 교수님이

△학생들은 피곤하다. 밥먹을 시간도 없다.

강의실 에어컨 설치 절실

학교측, 수요자 중심의 사고 전환 필요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막판 무더위가 기승이다. 그 덕분에 학우들과 교수님들만 비지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 이유인즉 2백여명 이상이 수업을 듣고 있는 큰 강의실에 에어컨 하나 없기 때문이다.

3시간 짜리 교양 한 과목을 듣는다 치면 2백여명이 땀곡히 들어앉아 있는 강의실은 한마디로 쥘뼉이다. 무더운 날씨에 열 친구의 체열까지 더해 이루말할 수가 없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친구들을 보면 모두 사우나라도 한 듯 땀에 흠뻑 젖어 있다. 학생들도 괴롭겠지만 교수님들도 그 고충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불만을 알았는지 얼마전부터 강의실에 선풍기 3.4대가 놓여있던데 내눈에는 그것이 그저 형식으로만 비춰졌다. 사실 그 큰 강의실에 선풍

기 3~4대는 턱없이 부족한 수이다.

공나물 시루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 받는것도 모자라 폭풍 쨍는 더위에 학생들의 집중력과 능률은 갈수록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불만들을 학교측에서는 아는지 모르는지... 선풍기 몇 대만 갖다 놓고 아무런 말이 없는 걸로 보아 모르는 듯 하다. 학생이 학교의 주인인 만큼 학생들의 목소리를 주의깊게 듣고 세심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고 배려해 준다면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커질 것이다. 물론 그에 따른 학생들의 주의의식도 향상 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학생들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좀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하겠다.

박소영(인문과학대 외국어문학부)

효율적인 시청각 도서실 이용을 위해

외국어 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청각 도서실은 원효관 3층에 위치해 있다. 영어 듣기 실력과 말하기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장소이다. 영어회화를 위한 오디오 교재와 비디오 교재를 다양하게 구비해 두었고, 또한 취업을 대비할 수 있도록 TOEIC교재를 갖추고 있어 전학년이 이용하는 장소이다.

그러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또 다른 매력은 영어도 배울 수 있도록 영어 자막이 나오는 영화를 마련해 두었다는 것이다. 지루하지도 않고 흥미도 느낄수 있을 뿐 아니라 생생한 생활영어 표현을 듣고 접할 수 있어 많은 학생으로부터 인기가 좋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하고 있으며, 이용할 때는 꼭 학생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음료수나 빵같은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간단한 필기 도구를 제외한 가방은 정해진 보관소에 두고 들어가야 하는데 간혹 어기는 학생들이 있다. 지성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주기 바람에 도난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고자 귀중품은 가방에 두지 말고 소지한채 들어가기 바란다.

더 깨끗하고 좋은 시청각 도서실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생각이다. (경주캠 외국어 교육원)

복사카드로 사용가능한 프린트기 확충해야

새 학기가 시작 되었다. 당연히 레포트는 쏟아져 오는데 우리 목책골의 프린터 갯수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각 단과대마다 저마다의 컴퓨터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덕에 학생들이 레포트를 작성하거나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레포트를 컴퓨터로 치기만 하면 무엇하나? 디스켓을 그냥 교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닌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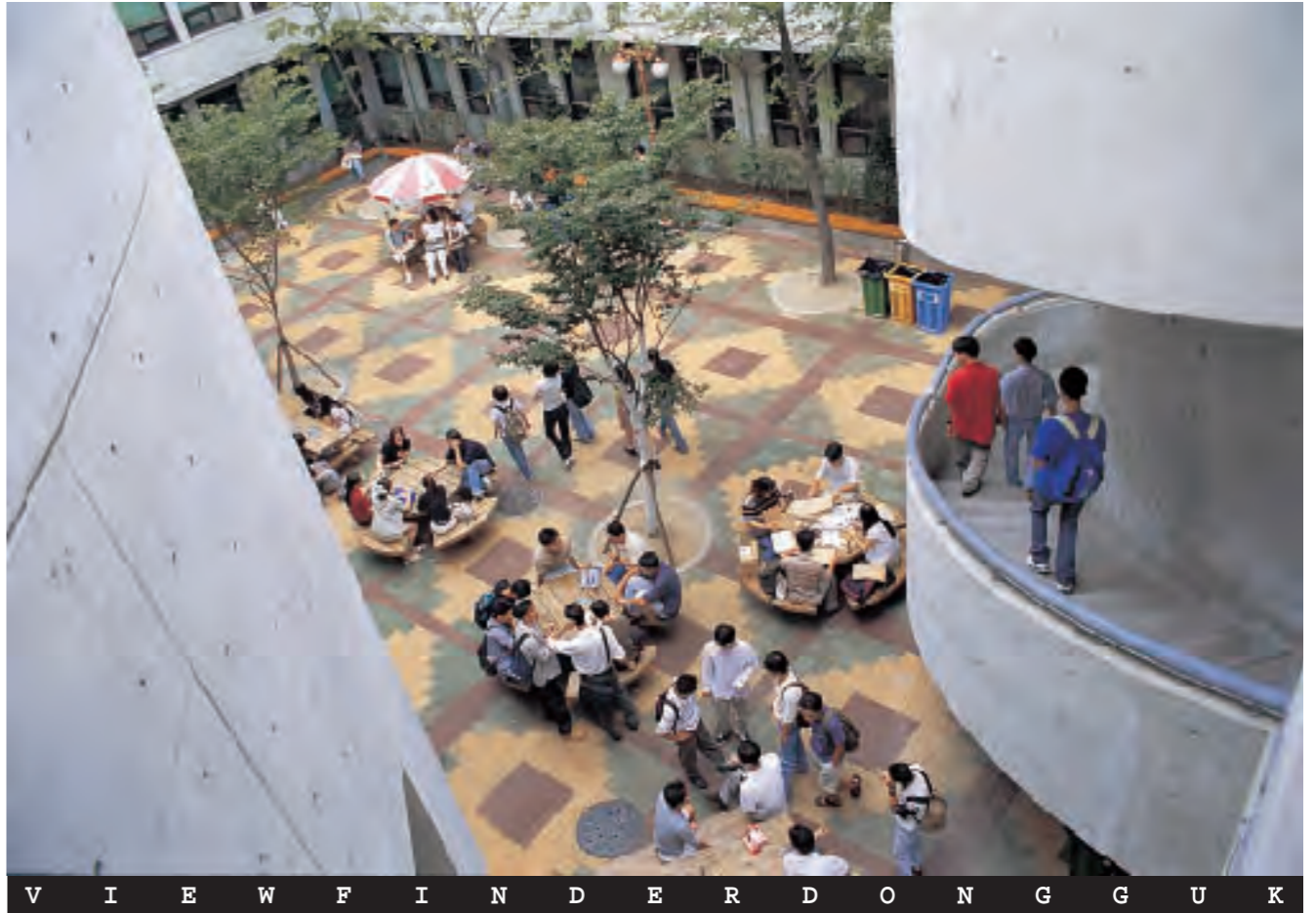
동국관 BSC에 프린터기가 2대있다. 내가 알기로는 복사 카드를 사용해 출력을 할 수 있는 곳은 그곳 뿐이다.

과연 학교는 다른건물 학생들의 편의는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 과거처럼 직접 손으로 써서 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기획사에 가서 장당 1백원이나 주고 출력을 해야하는 것인지... 게다가 산을 내려갔다 와야하는 수고까지 하면서 말이다

답답하다. 출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멀티미디어실도 토요일날 개방한다고 들었다. 그런 마당

에 급하게 출력을 해야 한다면 월요일 아침에 제출할 레포트를 월요일 오후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수업에 레포트를 출력하지 못해(기획사의 문어는 시간때문) 지각하는 사태가 계속 속출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학교측은 학생 복지를 위해 큰것에만 신경 쓰지 말고 사소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더 관심을 보였으면 한다. 최희영(eng40@daum.net)



한가위... 식사후의 담소는 언제나 즐거운 것. 때가 때이니 만큼... 상록원 앞 바티타일이 고향언덕에 걸린 보름달같이 보인다. 촬영=송광수 동문

모니터링

제1278호 동대신문을 읽고

'90년대...' 기사, 새로운 대학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 돼

그러나, 기성인과의 차별성 확보해야

갈수록 개인주의화하는 사회풍조에 따라 대학의 문화 또한 공동체 의식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70·80년대와는 다른 새로운 대학문화가 생겨나고 있다. 그러한 현실속에서 지난해의 '90년대 대학...' 기사는 새로운 대학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새로운 대학문화를 바라보는 문화평론가 권경우님의 칼럼과 목책골 락페스티벌 기사는 새로운 대학문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위 두기사를 읽은 독자들이라면 모두가 한번쯤 생각해왔고 공감할 만한 글들이다.

대학을 벗어난 사회의 제반 사건들과 사회현상들은 독자들인 대학생에게

상식과 시각을 넓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대학신문이라면, 우리 동대인의 눈과 귀가 되는 동대신문이라면 일반 신문들과는 차별화하여 보다 우리대학의 현 모습을 보여주는것이 옳다고 본다.

지면구성 측면에서 봤을때 지난해 대학문화에 대한 칼럼과 기사는 대학신문이 실어야 할 가장 적절한 기사라 생각한다. 한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대학 이외의 문화도 마찬가지로 대학문화의 변동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다양화되고 있다.

이런 대학문화를 기사화한다면 한호에 보도를 한다는 것보다 기획연재 등의 형식으로 좀더 심층적으로 보도되

었으면 한다.

또 한가지 그동안 동대신문을 읽으며 느낀점이 있다. 웬지 동대신문이 신문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기능인 보도의 기능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물론 매 호마다 새로운 많은 기사들이 있다.

하지만 사건보도보다는 기자의 주관적 의견 및 사견해석이 많다는 것이다. 여기서 칼럼 형식의 글들도 많은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더욱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다.

물론 칼럼은 필자의 사견으로 작성되지만 기자의 기사보도엔 사견이 배제되었으면 한다. 사건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독자의 몫이지 기자의 역할은 아니라고 본다.

김태식(인문과학대 국어국문학과)

TEL: 22603491-2 (0561)7702058 FAX: 22791270 (0561)7702057 하이텔 ID: dgpress 나우누리 ID: 동대신문 천리안 ID: dgupress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동약광장

목책골

축하합니다

△용선아!!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그래도 선물산건 분과 나뿐이야.

-지왕리어 △수범이형! 위석님! 수정! 종혁이! 생일축하! 人文 화이팅! -동기가 △경영학부? 명식이! 생일축하한다. 오래오래 행복하도록... -민정 최 △현백이 생일 축하한다. 지났지만 교린 이도.

-김중필을 비롯한 셋비람 △츝썩(승상이) 생일축하합니다~ 기타 잘치는 멋진 승상이에게.

-의주, 봉의, 혜연누나가 △수고99 세영, 은미아! 생일 축하한다.

열심히 합니다

△아논! 파이팅~ 백상 한번 잘해보자.

-98록. △군세어라 채란 동지들.

-family 강추위원회 △백상 농구대회를 열심히 준비합시다.

-1571 동결레 02 △경순, 현아, 말자. 진아 모두들 99년 9월의 끝자락을 상쾌히 시작하자. -얼른쓰

수고하셨습니다

△99한가위 한마당, 귀환 사업 진행느라, 찬정오빠, 찬영오빠, 은영언니 수고하셨습니다!!

-pinkpig △문과대 점거 농성하시는 선배님들, 동기를 수고하십니다. 모집단위 광역화 반드시 막아냈으면 좋겠습니다. -99인문인

그리고...

△법대 한봉희 교수님! 안녕히 가세요.

-호호흑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 잘 보내세요.

-31대 총학생회 △유정아! 나 재영인데 그만 힘들어하고 나에게 와! 사랑해! -재영

△정화아! 방송제때 못간거 미안하구 그 땀에 나 좀 그만 갈래라. 알겠지?

-귀염둥이 씨니 △에츝츝해 모입니다. 20일 6시 녹두서점 앞에서. 꼭 나와주세요.

은방글

축하합니다

△우X와 효Y의 200일 츝카~ △9월 20일은 비애천령 보현이와 이사밧 상덕이가 만난지 100일되는날. 웬수야 속 좀 그만 써어!! 그리고 사랑해.

△비록 지났지만 총장이 생일 축하해!

-블고 98일동 △언정아랑 준협이의 100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패밀리 일동 △사랑하는 영경아!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비록 추석이 낀 너의 21생일이라고 너무 슬퍼하지말구... 언제나 웃는얼굴 잃지말구, 사랑해...

-윤신이가 △철수 선배님. 2학기 과제 말으신것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많이 많이 드림테니 힘내십시오. 화이팅!

△불회 버팀목 현욱아 생일 축하해. 늦었지만 새로운 여자친구 생겼으면 좋겠다.

-빨갱이 △My friend 지희아! 21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나중에 생일빵 각오해.

-살리리가 △용욱아 다가오는 9월25일 너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미역국 많이많이 먹어.

-정호, 동욱, 성환, 현섭, 영주가 △자연과학부 B반 정윤하 생일축하한다. 이제 만나면 구박하지말고 내 좀 이해해 도.P·S:내생일 알지?

-가·교 혜영

열심히 합니다

△철학과 화이팅!

△복학 Family 열심히 공부합시다.

-중문과 마음소리 외디수 △교육투쟁! 힘차게 전진합시다.

-이무개 △총학생회 선전국장님. 힘내시구 올 가

을엔 꼭 결혼하세요.

-평 알립니다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 정가공연을 합니다. 통일을 열망하는 사람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통일맨 △야구장이 없어도 야구하는데가 있다!?! 궁금하면 외박. 원효관 옥상.

-DELL △group sound OUrock 에서는 참신한 1·2학년 멤버를 모집합니다. (연락처:011-842-6716)

△학생회 임기 1년 맞췄? 그런데 왜 많은 학생회가 벌써 사업접고 선거준비하고 그러나요. 정신차려!!

-학생회간부중 △가봉이와 혜영이의 사랑이 영원하길...

-추장과 발매들 △묘성형. 서울은 어떤가요? 막상 안계시니 캠퍼스가 쓸쓸하네요. 급의환한 하시길... 건강하세요. 매스컴타면 그쪽으로 신문 부쳐줄게요!

-고록니투와 매미 △9월16일 그 사람을 보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그사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월 김치비빔밥(1500) 소고기야채밥(1300) 화 어묵야채볶음(1300) 하이라이스(1300) 수 해물달걀밥(1500)

상록원 학생·교직원식당 차림표

월 소고기야채밥(1300) 우동전골(3000) 김치어묵국(1300) 북어양념구이(3300) 화 참치김치달걀밥(1300) 섞어찌개(3300) 산채비빔밥(1300) 콩나물술밥(3000) 수 맛살볶음밥(1300) 한가위음식부페(3500)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월 회달밥(1500) 카레라이스(1300) 화 양송이볶음밥(1300) 차킨가스(1500) 수 튀김달걀(1300) 스파게티(1500)

(단위:원)